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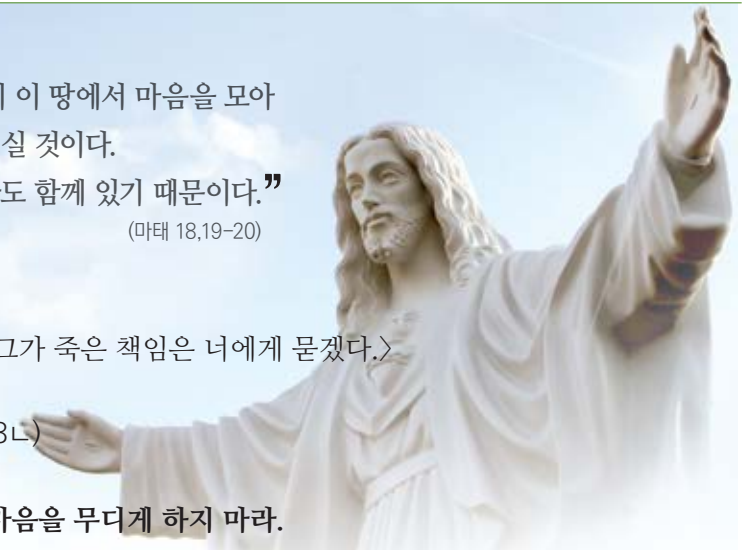
하상주보

2017년 9월 10일 (가해)

연중 제23주일

제1657호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 18,19-20)



제1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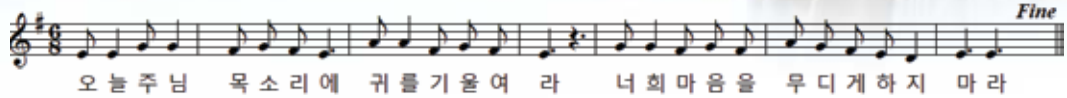
예제 33,7-9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화답송

시편 95(94),1-2.6-7ㄴㄷ.7ㄹ-9 (© 7ㄹ과 8ㄴ)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2독서

로마 13,8-10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음

마태 18,15-20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성가안내

- 입당성가: [46] 사랑의 송가
- 봉헌성가: [512] 주여 우리는 지금 [513] 면병과 포도주
- 성체성가: [173] 사랑의 주여 오소서 [174] 사랑의 신비
- 파견성가: [283] 순교자 찬가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33,7-9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 “너 사람의 아들이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8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이야,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고 할 때, 네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9 그러나 네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제2독서

로마서
13,8-10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형제 여러분, 8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9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 는 계명과 그 밖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는 말로 요약됩니다.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복음

마태오
18,15-20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5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16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17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9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묵상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내 것을 다 주고도 못 준 것이 없는지 둘러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내가 지닌 소유와 집착, 이기심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야 하는 의무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라면,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정신을 완성한 것이라고 바로 사도는 가르칩니다.

사랑은 자비와 선의로 채워지지만, 그렇다고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거짓 앞에서 사랑은 침묵하고 인내하기에 앞서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한 정의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웃과의 사랑을 관계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칩니다. 죄란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기에 그를 꾸짖는 행위도 사랑에 속합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상대의 진의를 왜곡할 수 있기에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은 다른 두세 사람의 증인 앞에서 진실을 고백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자기기만과 편견에 빠진 사람까지 끌어안으라고 예수님께서서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행위가 자칫 불의를 용인하고, 거짓을 인내하는 위선적인 사랑으로 변질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는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고 강조합니다. 무뎠던 마음으로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용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악에 맞서 선의 승리를 선포하고, 거짓과 위선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사회적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악의 연대가 강해 보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의 영의 연대가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의 예언자 직무를 잊지 맙시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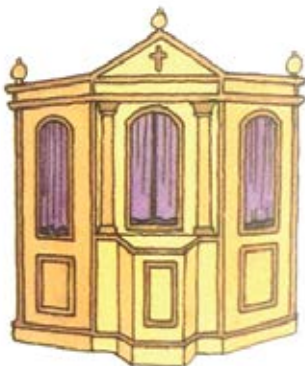


하상주보는 가톨릭 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가톨릭 교회 · 성경 상식을 연재합니다. 연재 내용은 “예비신자 궁금증 105가지” <줄리아 크노프 글, 롤프 분제 그림, 조규홍 옮김, 가톨릭출판사>에서 발췌되며, 매 주일 미사 후 신부님께서 알기 쉽게 해설해 주십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독을 부탁드립니다.



Q 고해성사

하느님과 화해하는 곳



고해소는 하느님을 거슬러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느님과 화해하는 곳이다. 이곳은 가운데 방에 앉은 사제 양쪽에서 신자들이 차례로 고해성사를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방이다.

고해소에서는 잘못을 깊이 뉘우친 사람들이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움을 받는다.

고해소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하느님께 존경하는 마음을 보여 드리는 것이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시다. 사제가 앉아 있는 양 벽면에는 작은 창이 있는데 사제와 고해자가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끔 가려져 있다. 작은 창이 열리고 사제의 목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하느님을 거슬러 지은 죄를 하나하나 사제에게 말하면 된다.

그러면 사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못을 고치면 되는지 알려 준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으로 마음이 상한 주위 사람들을 하느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청하는 뜻에서 ‘보속’을 준다. 보속은 잘못을 갚기 위해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기도나 간단한 행동을 말한다. 그런 다음 사제는 죄를 용서하는 기도인 사죄경을 바친다. 이 사죄경으로 우리의 죄는 온전히 용서를 받게 되고, 우리는 하느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언제나 다정하게 안아 주는 분이시다. 사제는 우리가 고백하는 잘못과 아파하는 마음을 모두 살핀 다음 우리에게 힘이 될 만한 말을 해준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한다거나 우리가 용기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준다.

사제는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이 감싸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니 고해소에 들어갈 때 너무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비록 잘못된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더라도, 고해성사를 통해 다시 깨끗한 마음이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 우리의 장벽을 허물 수 있다. 이때 장벽은 하느님께 다가갈 수 없도록 우리 자신이 잘못이나 죄로 쌓아 놓은 장애물을 가리킨다. 고해성사 끝에 사제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는 ‘당신을 짓눌렀던 짐은 여기에 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세요.’ 라는 뜻이다. 사제는 그 말을 하느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해 주는 것이다.

고해성사는 아마도 가장 짧은 성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해성사 내용은 왜 비밀일까?

사제는 고해성사 내용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다. 조그만 고해소 안에서 사제와 고백자 단둘이서 고해성사를 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교회가 매우 엄격하게 정한 교회법 가운데 하나다. 이를 ‘고해 비밀’ 이라고 한다. 우리가 고해성사 때 하는 이야기는 모두 하느님께 돌려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제는 그것을 하느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고해성사의 비밀이 지켜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고해하지 않았다!

옛날에는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했기 때문에 고해가 무척 힘들었다. 더욱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교회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그리고 특정한 때가 되어서야 다시 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매우 무섭고 엄격하였다.

그러다가 7-8세기에 이르러서야 개인적으로 고해할 수 있게 되었다. 12세기 이후에는 개별 고해가 더욱 발전하여 죄를 고백할 때는 귓속말로 하는 고해가 일반화되었다. 이런 고해를 들은 사제들은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1215년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 입법화(21항)되었다.

가톨릭 - 동방정교회 공동성명

“상처입은 지구 회복 위해 힘 모으자”

프란치스코 교황과 동방정교회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가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현재의 생태위기는 “인류가 하느님의 조력자로서 부여받은 피조물 보호의 사명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양 교회 수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온 인류에게 피조물에 대해 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각국 정부와 기업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는 “수많은 이들의 절규에 응답하고, 상처 입은 지구의 회복을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콘스탄티노플의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는 동방정교회의 수장으로 여겨진다.



프란치스코 교황(왼쪽)과 동방정교회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동방정교회는 트미트리오스 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제안에 따라 1989년부터 9월 1일을 ‘피조물을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9월 1일은 동방 정교회의 전례력이 시작되는 날로,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발표한 뒤, 교령을 통해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제정했다.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발표할 때 특사를 보내 환영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을 통해 환경을 위한 동방정교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는 특히 환경보전과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인간의 환경과 자연 환경이 함께 악화하고 있으며, 지구 환경 악화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영향을 준다”면서 “기후변화로 생기는 충격은 주변부의 가난한 이들의 몫”이라고 한탄했다. 또한 두 수장은 “우리는 자연을 더 이상 공통의 선물이 아니라 개인의 사유물로 여기고 있다”면서 “인류는 자연의 지속을 위해 협력하지 않고 우리들 자신만을 위해 균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 인류의 결연한 공동의 노력이 없다면 현재의 생태위기와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연대와 봉사를 통해 위기를 헤쳐 나가자”고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당시부터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는 2013년 3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즉위식에 참가했는데, 11세기 동서교회의 대분열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식 뒤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와 오찬을 함께 하며 주변의 추기경들에게 “나의 형제 안드레아”라고 소개해, 안드레아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정교회의 전통을 언급하기도 했다.

두 교회 수장은 2014년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이탈리아 로마, 터키 파나르, 2016년 그리스 레스보스 섬과 이탈리아 아시시를 함께 방문하며 일치와 화합에 노력해왔다. (가톨릭신문)

공동체 창설 31주년 기념 행사 안내



1 불우이웃 돕기 5K 뒤풀이/걷기 (복지부 주최)

- 일시 : 9월 16일(토) 오전 7:30 - 10시
- 장소 : Greenbriar Park, Fairfax
- 신청 : 8월 27일(일) - 9월 10일(일) 8시, 10시, 11:40 미사 후 친교실
- 신청비 : 1인 \$15 / 2인 \$25 / 한 가족당(4명) \$40 (도네이션도 받습니다.)
- 신청비 전액은 불우이웃 돕기에 쓰일 예정입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문의 : 김진호 다니엘 부회장 (703) 300-5420

2 음악의 밤

- 일시 : 9월 23일(토) 오후 8시(7시 미사 후)
- 공연 참가자 : 8시 성가대, 10시 성가대, 청소년 오케스트라, 핸드벨, 웨마 청년 성가대, 70/80 연주단



3 성경·교리 퀴즈대회

- 일시 : 9월 24일(일) 오후 1시(친교실)
- 대상 : 구역별 / 개인
- 접수 기간 : 9월 3일 - 9월 17일 8시, 10시 미사 후(친교실)
- 문의 : 강세원 구역부 부회장 (703) 489-3938



광고

베데스다에 위치한 셸러드바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 문의: 정 바오로 (703)969-1439



Pope Francis addresses Korean Council of Religious Leaders



Pope Francis on Saturday met with the Korean Council of Religious Leaders in the Vatican stressing the importance of interreligious dialogue directed towards a future of peace and hope.

In his prepared remarks to the Korean Council of Religious Leaders, the Pope highlighted the importance and often, as he put it, challenging path of interreligious dialogue. This dialogue between religions, noted the Pope, “consists of contacts, encounters and cooperation, a challenge directed towards the common good and peace.”

He went on to say that, “such dialogue must always be both open and respectful if it is to be fruitful.”

Pope Francis told those present, “the world is looking to us; it asks us to work together and with all men and women of good will.”

The world, continued the Pope, “looks to us for answers and a shared commitment” on a range of issues, such as, the sacred dignity of the human person, the hunger and poverty which still afflict too many peoples, the rejection of violence, and, not least of all, the crisis of hope.

“We have, therefore, a long journey ahead of us, observed the Holy Father, one he said, that must be undertaken with humility and perseverance, not just by raising our voices but by rolling up our sleeves, to sow a future of hope.”

● September 2, 2017 (Vatican Radio)

Religious Studies

September The Month of the Seven Sorrows of Mary

Devotion to the sorrows of the Virgin Mary dates from the twelfth century, when it made its appearance in monastic circles under the influence of St. Anselm and St. Bernard. The Cistercians and then the Servites undertook to propagate it.

It became widespread in the fourteenth and especially the fifteenth centuries, particularly in the Rhineland and Flanders, where

Confraternities of the Sorrowful Mother sprang up. It was in this context that the first liturgical formularies in her honor were composed. A provincial council of Mainz in 1423 made use of these in establishing a “*Feast of the Sorrows of Mary*” in reparation for Hussite profanations of her images.

In 1494 the feast appeared in Bruges, where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was venerated; later on it made its way into France. It did not, however, become widespread in France before Benedict XIII included it in the Roman Calendar in 1727 and assigned it to the Friday before Palm Sunday.



✦..... The Seven Sorrows✦

1. The Prophecy of Simeon (Luke 2:25-35)
2. The flight into Egypt (Matthew 2:13-15)
3. The Child Jesus Lost in the Temple (Luke 2: 41-50)
4. Mary meets Jesus carrying the cross (Luke 23: 27-29)
5. Mary at the foot of the cross (John 19: 25-30)
6. Mary receives the body of Jesus (Psalm 130)
7. Mary witnesses the burial of Jesus (Luke 23: 50-56)

ANNOUNCEMENT

1. Confirmation class (2nd semester) resumes

- When : September 13th

2. Confirmation class Parent's meeting

- When : September 13th, 8pm • Where : Hasang building

3. Sunday School Assistant Teacher needed

- Please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or email spc15.re.admyc@gmail.com.

구역임원 교육

9월 구역 임원 교육이 지난 3일(일) 32명의 구역 봉사자와 구역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친교실에서 있었다. 백인현(안드레아) 주임 신부는 “형제가 죄를 지으면” (마태 18, 15-20)이라는 복음 묵상 안에서 “이웃 사랑은 이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며 “이웃 사랑이 쉽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므로 기도하며 용서할 힘을 주님께 청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9월 24일에 열리는 성경·교리 퀴즈대회 진행에 대해 설명하고 신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새롭게 집행될 소공동체 모임 지원비에 대하여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두선교

레이오 마리에 단원들의 가두선교가 매 주일 이어지고 있다. 겸손의 어머니 뿌레시디움 (단장 노응홍 아브라함) 단원 1명과 영광의 어머니 뿌레시디움 (단장 정우석 빌립보) 단원 2명이 각각 지난 8월 27일(일)과 9월 3일(일)에 센터빌 H마트와 웨어팩스 H마트 앞에서 쇼핑객들을 상대로 가두선교에 임했다.

겸손의 어머니



영광의 어머니



WELCOME

방명준 신부님 환영합니다!

성 정바로로 성당의
제8대 보좌 신부로 부임하시는
방명준 라우렌시오 신부님께서
지난 6일(수)에 도착하셨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신부님을 한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제77차 예비자 입교식

제77차 예비자 입교식이 지난 3일(일) 하상관에서 열렸다. 백인현 주임신부, 교리교사, 선교 부원 소개에 이어 예비자들의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다. 예비자들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매 주일 교리 수업에 참여하게 되며 영세식은 내년 2월 23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들은 영세 후 6개월 동안 신앙생활 정착에 필요한 신심 단체 소개 및 성지 순례, 신부·수녀님과의 대화 시간 등 후속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갖는다.

바로로회 사랑의 묵주 기도 스테이션

기도 지향

† 그동안 우리 본당을 위해 헌신하신
성원경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신부님의 영육 간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 이번 기도는 신부님이 귀국하시기 전까지 바칠 예정입니다.

- 1 성원경 보좌 신부님 송별 미사**
 - 일시 : 9월 10일(일) 오전 10시 미사
 - 그동안 따뜻한 사목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성원경 신부님께서 임기를 마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 부임자(원주교구 청소년 교육국장)에서 영육간 건강하시기를 마음모아 기도드립니다.
- 2 방명준 보좌 신부님 부임 미사**
 - 제8대 보좌신부님으로 부임하시는 방명준 라우렌시오 신부님을 환영하며 신부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 부임미사 : 9월 17일(일) 오전 10시 미사
- 3 제77차 예비자 모집**
 - 교육 : 매주일 오전 11:30 (하상관 #108)
 - 문의 : 유제운 요셉 선교부장 (703)628-9314
- 4 단체장 회의**
 - 일시 : 9월 10일(일) 오전 11:30 (B-3,4)
- 5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9월 10일(일) 오후 1시 (B-3,4)
- 6 주일학교 개학**
 - 일시 : 9월 10일(일) 오전 10시 (체육관)
 - 개학식 및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 문의 :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 7 사도임원회**
 - 일시 : 9월 15일(금) 오후 8시 (B-1,2)
- 8 하상회**
 - 일시 : 9월 17일(일) 오전 11:30 (부엌 뒤 테라스)
- 9 안나회**
 - 일시 : 9월 17일(일) 오전 11:30 (부엌 뒤 테라스)
- 10 베드로회 모임 (40대 교우)**
 - 일시 : 9월 17일(일) 오후 1시 (B-1,2)
- 11 바오로회 주관 친목 운동회**
 - 바오로회가 로고스, 라파엘, 베드로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을 친목 운동회에 초대합니다. 이번 행사는 바오로회가 선배님들과 동생들에게 다가가는 첫 걸음입니다. 20-40대 미/기혼 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 9월 17일(일) 오후 1시-4시, 체육관
 - 문의 : 이성근 예레미아 (703)627-1932, sleeh@yahoo.com

- 12 레지오 야외행사 및 홍보의 날**
 - 일시 : 9월 17일(일) 오전 11:30 (나눔터)
- 13 청년 성가대 단원 모집**
 - 5시 미사 청년 성가대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 임명민 프란치스코 (703) 624-7853
- 14 울뜨레야 야외행사**
 - 일시 : 9월 23일(토) 오전 10시
 - 장소 : Bull Run Regional Park #7
 - 문의 : 광노덕 (703)608-9664
- 15 꾸르실리스마 영성 파정**
 - 일시 : 9월 24일(일) 오후 1:30 - 오후 6시
 - 강사 : 김중성 베드로 신부님
 - 장소 : 워싱턴 성당 (소성당)
 - 문의 : 광노덕 (703)608-9664
- 16 제4기 성마리아 어머니학교**
 - 주제 :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어머니로서의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 대상 : 자녀를 둔 모든 어머니 (나이 관계 없음)
 - 접수 기간 : 9월 24일(일), 10월 1일(일) 친교실, 선착순 40명
 - 문의 : 최아델라 (703) 470-1220, 김베로니카 (703) 864-1236
- 17 제11차 알링톤 교구 청소년을 위한 미사**
 - 일시 : 9월 10일(일) 오후 6시 (버빗지 주교님 집전/ 미사 후 친교)
 - 장소 : St. Charles Borromeo Catholic Church 3304 Washington Blvd, Arlington, VA
- 18 현재 성인 사복사성이 진행 중인 가경자 소 알로이시오 신부님의 선종 25주년, 사제수품 60주년 기념 행사**
 - 기념 미사 : 2017년 9월 16일(토) 오후 5시 (Donald Wurel 추기경님 집전)
 - 장소 : St. Andrew the Apostle Catholic Church 11600 Kemp Mill Rd, Silver Spring, MD
 - 알로이시오 슈윙츠 몬시뇰은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워싱턴 디시에서 민간 원조 기관인 한국 자선회 (Korean Relief, Inc)를 설립(1961년), 기금을 모금하여 한국에서 구호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이후 가난한 나라에서 자선, 교육활동을 하시던 중 1992년 3월 선종하셨습니다. (웹 사이트 참고: https://en.wikipedia.org/wiki/Aloysius_Schwartz)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 (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성경필사는 “2017 성경필사 주일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 연중 제 23 주간 : 민수 26 - 30/ 마르코 10장

* 2차헌금 *

하리케인 하비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9월 14일 (목) 오후 5:00-6:00
9월 15일 (금) 오후 8:00-9:00
9월 17일 (일) 오전 6:00-7:00

- 가톨릭 종합뉴스
- 다큐멘터리 임 따라 한평생 : 원주교구 최기식 베네딕토 신부. 한국 천주교회 두번째 조선인 사제 최양업 도마 신부의 가문에서 꽃 피운 신앙의 삶이 소개된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9월 3일 (연중 제22주일)

주일헌금	\$ 7,252.00
교무금	\$ 9,545.00
교무금(크레딧카드)	\$ 2,230.00
특별헌금	\$ 435.00
2차 헌금	\$ 2,375.00
합계	\$ 21,837.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권(스테파노), 김경화, 은규희(발버라), Thomas Byrne, 홍중범(시몬), 한중복(루시아), 정명규(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버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제중(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김영식(베드로), 양소하(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복(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냐시오), 안순겸(모니카), 이수선, 김희순(세실리아)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술(루시아),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병기(펠릭스), 윤백창(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진(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병수(요한), 임철민(요셉),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셀(미카엘라), 예스터 정(세레나), 신재현(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9월 10일(일)	연중 제23주일	성원경 신부님 송별 미사,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3,4),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B-1,2),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성서통독반(오전 11:50, B-2), 주일학교 개학(오전 10시, 체육관)
11일(월)	연중 제23주간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12일(화)	연중 제23주간	성서통독반(오후 8시, B-4), 성경기도회(오후 8시)
13일(수)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학자 기념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성서통독반(오후 7:30, A-1)
14일(목)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15일(금)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저녁미사(오후 7:30, 성당), 사도임원 회의(오후 8시, B-1,2)
16일(토)	성 고르벨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	아침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5k 걷기/달리기(오전 7:30-10시)
17일(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방명준 보좌 신부님 부임 미사, 안나회/하상회(오전 11:30, 부엌 뒤 테라스), 레지오 야외행사/홍보의 날(오전 11:30, 나눔터), 베드로회 모임(오후 1시, B-1), 바오로회 운동회(오후 1시, 체육관), 성서통독반(오전 11:50), ME학교 봉사자 교육(오후 2시, A-1,2)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토)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과 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월리암)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챌린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메디케어 흥석철 마태오 703-969-8956 박인경 소피아 703-969-8954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파나) 703-992-7930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퍼터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시몽사진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SBA 대출/상업대출 Bank of Hope Jessie kim 571-488-500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 은퇴 계획, 건강, 메디케어 자동차, 주택, 사업체 703-649-2110	공인회계사(CPA) 개인세금, 비즈니스 회계, 컨설팅 앤디차 (대건 안드레아) 703-678-8848	Kwon's Champion School 종합무술 (Before / After / Evening) 703-785-3845	피아노 레슨 아동 - 성인반 원하는 장르 가능 703-505-8559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톨릭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